



13일 오후(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카타르SC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6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C조 예선 한국 대 우즈베키스탄 경기. 한국의 문창진이 페널티킥을 성공 시킨 후 동료들과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창진 원맨쇼’ 신태용호, 리우행 캐조의 스타트

AFC U-23 챔피언십 C조 예선 우즈베크전 멀티골... 2-1 승

내일 밤 10시 30분 예멘과 2차전... “다득점으로 승부”



태극전사들이 예멘을 발판 삼아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남자 축구 본선 진출을 향해 가속도를 낸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대표팀은 16일 22시30분(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예멘과 올림픽 예선전을 겸해 열리는 2016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C조 2차전을 치른다.

일단 한국은 14일 우즈베키스탄과의 첫 경기에서 혼자서 2골을 뽑아낸 문창진의 ‘원맨쇼’를 앞세워 2-1로 승리했다. 이 승

리로 한국은 올림픽 최종예선 30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캐조의 출발을 했다.

8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신태용호는 1차전 승리를 지상 과제로 삼고 대회에 앞서 2차례 평가전까지 치르면서 최상의 전술을 구상했다. 특히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디펜딩 챔피언’ 이라크를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예멘 등 쉽지 않은 팀들과 한 조를 이룬 터라 대회 분위기를 좌우할 1차전 승리는 더욱 간절했다.

신 감독은 이날 1차전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예멘 경기는 무조건 이겨야 한다. 일단 다득점으로 돌아선 뒤에 편하게

경기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즈베키스탄을 꺾어 8강 진출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이라크와의 조 1위 경쟁을 대비해 골대실에서도 최대한 여유있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신 감독의 다득점 목표는 실현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올림픽대표팀과 예멘의 역대전적은 1승1패로 팽팽하지만, 예멘은 C조에서 최악체로 평가받고 있다. 예멘은 이라크와의 첫경기에서 시종일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스코어는 0-2였지만 경기 내용상으로는 서너골 이상 차이가 났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다.

예멘은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장면에서 적지않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실점도 모두 공격 전환 과정에서 나온 실수에서 비롯됐다.

신 감독이 구사하는 압박축구가 더 많은 골 기회를 불러올 수 있다. 예멘이 이날 경기에서 이라크의 측면 돌파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인 것도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대표팀 공격을 주도하는 황희찬(잠즈부르크)과 권창훈(수원)은 측면돌파가 장점이다. 부상 탓에 주춤했던 문창진(포항)이 부활한 것도 대표팀에게 더할 수 없이 긍정

적인 요소로 꼽힌다.

권창훈과 황희찬으로 이어지는 공격패턴은 파괴력이 강하지만 상대팀에도 적지않게 노출됐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돌아온 문창진의 득점포는 대표팀의 공격력을 더욱 위협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 감독은 우즈베키스탄전에서 승리를 불러온 4-4-2 전술을 예멘전에서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측면 활용 강화를 위해 투톱 대신 원톱을 내세우는 4-1-4-1 전술로 변화를 줄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 승리 위해 혁신한다

마무리 꿈꾸는 KIA 한승혁

투구품 교체 다크호스 부상

“안정된 모습 기대하세요”

잃어버야 아는 소중한 것들이 있다. KIA 한승혁에게도 그랬다. 잠시 마운드를 ‘잃었던’ 그가 소중함과 간절함을 안고 2016시즌을 향해 뛰어든다.

팀에서 가장 빠른 공을 가진 한승혁은 KIA가 애지중지하는 유망주다. 가슴 설레게 한 순간도 많았지만 더딘 성장세로 무던히 애를 태운 그는 윤석민이 빠진 불펜에서 많은 역할을 해줘야 하는 선수이기도 하다.

지난 마무리 캠프에서 “달라졌다”며 한승혁의 이름이 심심치 않게 나왔다. 정말 달라졌다. 먼저 한승혁의 거친 폼이 달라졌다. 지난 시즌 중반 투구폼을 바꿨던 한승혁은 마무리 캠프에서 다시 전면적인 변화를 감행했다. 핵심은 짧은 백스윙이다. 테이크 백 동작을 짧게 가고 최대한 앞으로 릴리스 포인트를 끌고 나온다. 한승혁을 상징하는 스피드는 그대로다. 전력분석팀은 “보기에 도편하고 스피드, 구위도 좋다”고 평가했고, 타자들은 “순 뒤에서 바로 나오니까 공이 잘 안 보인다”고 말했다.

진짜 변화는 ‘마음’이다. 지난 시즌 초반에는 스피드에 제구까지 어우러지면서 거침없었지만 이번에도 여름 고비를 넘지 못했다. 기대는 다시 실망으로 바뀌었고 한승혁 자신도 큰 실망을 했다. 더딘 성장과 반복되는 실패에 결국 그는 상무 입대를 준비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성숙해져서 돌아

오겠다며 작별을 준비했지만 팔꿈치 수술 이력 탓에 입대가 불발됐다. 군대는 가지 못했지만 마음은 이미 군대를 다녀왔다.

한승혁은 “동기부여가 된 것 같다. 입대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내 자신을 많이 돌아봤다. 당분간 KIA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현재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됐다. 야구를 더 진중하게 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간절함은 두려움을 밀어냈다. 익숙했던 것을 버리지 못했던 그는 몸과 마음을 비우고 야구를 새로 시작했다. 투구폼 변화가 그 과정의 하나다.

한승혁은 “변화를 주는 게 쉽지는 않았다. 돌아보면 여름에 좋지 못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은 내 투구 매커니즘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기초가 좋으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좋은 매커니즘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진중해진 눈빛과 마음을 읽은 동료들은 한승혁을 올 시즌 다크호스로 주목하고 있다. 스프링캠프는 변화의 결과를 점검하고 발전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한승혁은 “완전한 내 것이 될 때까지 품어 어느 정도 왔다갔다 할 것이다. 그 래도 개인 훈련을 하면서 바꾼 폼에 많이 익숙해졌다. 선배들이 예전 폼으로 던져보라고 했는데 원래 하던 대로 못 던지겠더라(웃음). 짧게 바꾸니까 몸은 더 안 쓰게 되고 체력 부담도 덜하다. 보기에 편하다고 한다. 남이 아니라 내가 편해야 하는 건데 이번에는 긍정적



으로 잘 바뀌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보직에 상관없이 마운드에 힘을 보태고 싶다는 그지만 언젠가 얻고 싶은 이름은 마무리다. 한승혁은 지난해 폭투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차지했다. 마무리는 물론 필승조로 활약하기 위해서는 폭투와의 싸움을 해야 한다.

“패타기를 덜 치고 싶다”며 속스럽게 웃은 한승혁은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안정감 있게, 조화롭게 야구를 하고 싶다. 준비를 잘했다. 올 시즌이 많이 기대된다. 진중하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캠프 잘 치르고 특별한 시즌을 맞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슈틸리케호, 러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 확정

FIFA, 쿠웨이트 ‘물수패’ 징계...한국 조1위

올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을 확정지었다.

국제축구연맹은 14일 쿠웨이트에 대한 징계를 발표하고, 지난해 11월 연기된 러시아 월드컵 2차예선 미얀마와 경기에 대해 물수패(0-3패)를 결정했다.

FIFA는 작년 10월 쿠웨이트의 체육 관련 법률이 정부의 체육단체 행정 개입을 가능하도록 개정됐다는 이유로 축구협회의 자격을 정지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11월 열릴 예정이었던 쿠웨이트-미얀마의 월드컵 아시아 지역예선 6차전이 열리지 못했고, FIFA는 쿠웨이트의 0-3 물수패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 지역예선 G조에서 6전 전승(승점 18)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두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조 1위를 확정지었다. 조 2위인 쿠웨이트는 이날 물수패로 3승1무2패(승점 10)가 되면서 두 경기에서 다 이겨도 승점 1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조 3위인 레바논 역시 3승1무2패(승점 10)로 두 경기만 남겨두고 있어 남은 경기에 승리해도 슈틸리케호의 승점에 미치지 못한다.

쿠웨이트는 남은 두 경기를 치를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 3월까지 자격정지 징계가 풀리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물수패를 당하게 된다.

슈틸리케호는 이에 따라 카타르에 이어 두 번째로 조 1위로 아시아지역 최종 예선 진출을 확정지으며 월드컵 9회 연속 진출을 위해 한 발짝 더 다가갔다. 오는 3월 레바논과의 홈 경기는 부담없이 치를 수 있



게 됐고, 조별리그 마지막 쿠웨이트와의 경기는 물수승을 거둘 수도 있게 됐다.

/연합뉴스

## KIA 스프링캠프 돌입...내일 애리조나 출국

2016시즌을 위한 ‘호랑이 군단’의 탐금질이 시작된다.

KIA 타이거즈가 16일 미국 애리조나로 출국해 스프링캠프에 돌입한다. 김기태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 11명, 선수 38명 등 49명의 선수단으로 꾸려진 미국 캠프조는 ‘3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내달 7일까지 스킵스데일 솔트리버필드에서 몸을 푼다.

선수단은 애리조나에서 체력 및 기술, 전술 훈련을 소화한 뒤 2월8일 일본 오키나와로 건너가 실전체제로 전환한다.

2월 13일 주니치와의 연습경기를 시작으로 아쿠르트(14일), 요코하마(17일), 라

쿠텐(18일), 삼성(19일), 히로시마(22일), 요미우리(23일), 니혼햄(24일), SK(26일), 한화(27일), LG(29일), 넥센(3월1일)과 12차례 연습경기를 갖고 실전 감각을 끌어올린다.

한편 ‘만행’ 최영필 등 베테랑과 윤석민·양현종 등 9명의 선수는 캠프 이원화 정책에 따라 2월1일 선발조로 오키나와로 이동, 본격적인 시즌 준비에 들어간다. 오키나와 캠프 선발조 선수들은 광주와 함평에서 훈련을 소화한 뒤 오키나와로 건너갈 예정이다.

◇애리조나 캠프조 명단  
▲코칭스태프(10명) : 김기태 조계현 박

흥식 김태룡 김창희 김종국 이대진 유동훈 홍세완 타케시 박종하 ▲투수(16명) : 임준혁 배현찬 한기주 정용운 심동섭 임기준 홍건희 박준표 한승혁 이준영 유창식 김명찬 박동민 김윤동 허태 지크 ▲포수(3명) : 백용환 이흥구 신범수(신인) ▲내야수(11명) : 이범호 김주형 최용규 최병연 윤완주 고영우 이인행 박진두 황대인 최원준(신인) 필 ▲외야수(8명) : 신종길 나지완 김다원 윤정우 노수광 김호형 오준혁 이진영(신인)

◇오키나와 캠프 선발조 명단  
▲코칭스태프(3명) : 유동훈 홍세완 박현희 ▲투수(5명) : 최영필 김병현 김광수 윤석민 양현종 ▲포수(1명) : 이성우 ▲내야수(1명) : 김민우 ▲외야수(2명) : 김원섭 김주찬 /김여울기자 wool@